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내 옆에 정부혁신★

보도일시 즉시 배포 2025. 5. 29(목) 15:10

부산해수청 · 남해해경청 · 부산항만공사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계류선박 관리체계 구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5월 29일(목) 부산해수청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 이하 “남해해경청”),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이하 “BPA”)와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상시 관리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손을 잡은 것이다. 지난 해 3개 기관이 협력해 부산항 집단계류지에 방치됐던 고위험선박 7척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계선신고 관리 △방치·침몰선박의 정보공유 등 행정적인 지원 △장기계류선박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남해해경청은 △고위험선박 현장 실태조사, 위험도 평가 및 사전 예방조치 등에 협력하고, BPA는 △장기계류·방치선박 현황 관리 △고위험선박 사전 예방조치 △집단계류지 현장관리 강화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산항 장기계류선박을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침몰·오염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긴급방제 총괄기관으로서 부산항 장기방치선박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3개 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부산항내 고위험 장기계류, 방치선박을 예방하고 계류선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부산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박정인	(051-609-6500)
		담당자	사무관	이외경	(051-609-6450)
		담당자	주무관	박규환	(051-609-6451)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책임자	과 장	이종남	(051-663-2091)
		담당자	계장	박창용	(051-663-2197)
		담당자	주무관	박강남	(051-663-2397)
부산 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책임자	실 장	윤지현	(051-999-3130)
		담당자	차 장	오덕수	(051-999-32787)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 100년 넘어갈 안심기준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사 사진


–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한 –
부산해수청·남해해경청·BPA 업무협약(MOU) 체결
2025. 5. 29.(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BPA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한 –
부산해수청·남해해경청·BPA 업무협약(MOU) 체결
2025. 5. 29.(목)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한 –
부산해수청·남해해경청·BPA 업무협약(MOU) 체결
2025. 5. 29.(목)